

Powerful Pohang은 화합과 개  
척의 포항정신으로 미래를 향해  
함차게 약진하는 역동의 도시를  
의미한다

# 열린포항



## 칠포리 암각화

미루나무 자지러지는 만추의 하오  
농익은 처녀가 가랑이를 짝 벌려 놓은  
홍해읍 칠포리 곤륜산 서사면  
날선 청동기로 당랑(螳螂)이 거미를 사냥하는데  
우랄산맥과 바이칼 호수를 지나  
연해주를 거친  
미로에 갇힌 그놈의 낭자한 시간들이  
일시에 말문을 터뜨린다  
어느 놈은 역삼각형의 도톰한 음부에  
수작을 부리고  
어느 놈은 석검에다 바코드를 붙이고  
또 어떤 놈은 건너편 농밭재 바위에다  
별자리를 그린다  
그때는 그랬을 것이다  
간절한 입 속의 주문이 하늘이고 별이고 달이었을  
아득히 먼  
우렁이 사람의 각시가 되던  
그때는



### 장 태 원

시인  
1957년 포항 출생.  
민족작가회의회원.  
여맥 편집인  
청하중학교 교사

# 글로벌 포항 건설을 이룩하자!

먼저 새로 출범한 민선 4기의 순탄하고 성공적인 항해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정 목표를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건설'로 설정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 글로벌(Global)시대 그리고 유비쿼터스(Ubiquitous)사회로 특징지어지고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꿈, 환언하면 비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처음으로 주창한 MBO(Management by Objectives)는 상하 조직원 모두가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그 성과에 따라 포상을 하는 시스템으로서 올바른 목표설정이 매우 중요 합니다.

목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SMART 방법이 있습니다. 즉 목표는 Specific(명확)하고 Measurable(측정가능)해야 하며, Achievable(달성가능)하고 Realistic(현실적)하며 Time-related(시간적 우선순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피터 드러커는 '지혜롭게 일하는 것(Working smarter)은 더 열심히(Working harder) 또는 더 오래(Working longer) 일하지 않고서도 더 높은 생산성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식기반사

회에서는 일하는 방법의 개선, 새로운 프로세스의 개발, 기존의 틀을 바꾸는 혁신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1940년대 중반에 탄생한 디지털 컴퓨터는 매우 급속도로 발달했을 뿐 아니라 통신망과 결합하여 정보를 창출하고 처리하며 저장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과 컴퓨터, 그리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한 것입니다.

유비쿼터스란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한다. 는 뜻으로 1988년 미국 제록스(Xerox) 팔로알토 연구소의 마크 와이저(Mark Wiser)가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표한 이래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한국에서도 2003년 정보통신부가 IT839 전략을 수립하면서 u-Korea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국내 IT산업은 꾸준히 발전하여 세계 강국으로도 약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등은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광대역 네트워크와 IT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이동전화

# 환경도시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경제! 글로벌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희망의 뜻을 올린 지 100여일을 맞는 민선4기『포항호』

『포항호』가 첫 항해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항해를 해아만 했다. 82일간 파업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국가기간사업체 본사가 점거되고 지역경제는 만신창이가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포항호』는 이제 그 시련에서 벗어나 제2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환경도시의 꿈이 실현되는 희망경제! 글로벌 포항건설」의 실천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포항호』의 선장으로 취임한 박승호 시장은 51만 시민을 위해 한 몸 불태우겠다는 마음 하나로 오랜 기간 중앙무대에서 같고닮은 경험과 전문가적 기질을 발휘하여 “포항비전 5대 핵심과제와 7대 전략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지금 『포항호』의 심장부에는 POSCO의 용광로처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켜져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2천여 직원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51만 시민들을 위해 진정한 봉사의 길만을 가기위해 일사불란한 항해를 계속해나가고 있다.

박승호 시장은 지난 7월1일 취임하자마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포항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임기를 시작했지만, 전문건설업 노조의 파업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 많은 근로자와 경찰관들이 다치고 70여명의 근로자들이 구속되고 국가 기간사업체인 POSCO의 심장부가 8일간이나

점거되었으며, 시위 중 근로자 한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등 장장 82일 동안 포항은 성장 동력이 멈춰서고 경제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며 온 국민들에게 우려의 시선을 던져주었다.

죽도시장에서도 멀리 죽장면 상옥리에서도 서민들의 아우성들이 뻗었고 대다수 근로자들은 자녀학비조달은 물론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가동을 멈춘 기업은 도산직전까지 내몰렸다.

박 시장은 쇠파이프가 난무한 파업현장을 뛰어다니며 사업주와 노조, 양측을 술한 시간 설득해보았고 호소도 해보았다. 밤잠을 설쳐가며 입술이 부르트도록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사양측 중재에 나서봤지만 오히려 괜한 오해까지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집념은 『포항호』를 순항시켜 나아가야한다는 프로정신 하나뿐이었다. 온갖 비난을 퍼부어도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한 치 차질 없이 쟁겨나갔다. 그의 절박한 심정은 정치권까지 움직였다. 시민·사회단체 할 것 없이 각계각층 시민들이 나서서 꺾기도 하게 되었고, 끝내 파업만을 풀어야한다는 절박한 사회분위기가 작용하여 지난





## 5대 핵심프로젝트는?

### 국제교역 거점항만 개발

홍해 영일만항과 배후부지를 국제교역의 거점도시로 조성하게 된다. 오는 2011년까지 계획된 16선석의 부지를 조기에 개발하고, 영일만항 배후 180만평을 개발해 국가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받아 '기업형 신도시'로 개발성하여 포항을 명실상부 대구·경북의 관문도시이자 5대양 6대주를 아우르는 국제무역의 중심도시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 포항테크노밸리 조성

세계 최고수준의 Postech과 방사광가속기연구소 등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고, 생명공학연구센터와 국가나노집적센터, 현재 건설 중인 지능로봇연구소, 소형모터기술개발종합지원센터, 1단계 사업에 이은 2단계 포항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첨단소재 R&D특구로 지정받아 명실상부 세계적인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게 된다.



### 동빈내항 생태복원

이 사업은 동빈내항에 운하를 건설하는 게 핵심이다. 2011년까지 송도교에서 해도 형산강까지 1.3km구간을 폭 40m로 운하를 건설해 형산강물을 동빈내항으로 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죽어가는 동빈내항을 옛 모습처럼 사시사철 맑고 푸른 아름다운 항구로 되살려 호텔과 쉼터 등 위락공간을 갖추게 된다.



### 영어마을 조성

포항을 이끌어 갈 국제적 감각을 가진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동시 2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어마을 1개소를 경북도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2008년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 해양 관광·레저벨트 조성

송도백사장을 복원하고 보트와 유람선 계류시설, 위락시설, 특급호텔,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송도위터프론트를 개발하고, 두호동과 환여동 일대 해양마리나-존을 설치, 호미곶을 중심으로 해양관광특구로 개발하는 등 동해안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 7대 전략과제는?

### 글로벌 경제성장 모델도시 창출

기존 철강산업 중심의 단순한 사업구조를 다양화된 산업구조로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모델로 육성하는 한편, "기업사랑운동"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자본과 기업이 몰리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국제교역 거점도시와 지곡동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포항테크노밸리를 조성, 기업사랑운동 본부를 세워 기업사랑을 통한 비즈니스 중심도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지원 해외시장 개척 등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규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안정, 재래시장과 도심상권 부활에 시정에 최우선을 둘 계획이다.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도시 조성

지난 30년간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렸던 지역의 간선도로와 강, 하천 및 동빈내항, 영일만 바다를 다시 푸르게 가꾸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자는 계획이다. 이의 최우선 과제로 2011년까지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해 맑고 푸른 동빈내항을 만들고, 폐철도부지를 친환경 들길로 조성하며, 시내 곳곳에 쉼터와 근린공원, 도시근교에 골프장 등 여가생활 인프라와 연일 중명 생태공원과 도음산 산림욕장, 비학산 자연휴양림 등 체험형 산림휴양시설을 갖추고 마을하천 복원과 실하천살리기 사업 등 도시전체 경관을 숲과 꽃이 어우러지도록 그린-포항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 세계로 뻗어가는 광역도시 기반 조성

대구·경북지역 해양진출의 관문이자 대북방 진출의 전진기지 역할

# 제15회 전국무용제 "Let's Dance"

"Welcome to Clorful Dance!"라는 주제로 전국 15개 시·도대표 무용단들의 춤의 향연이 지난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의 대장정으로 한국 최대의 춤잔치가 포항에서 펼쳐졌다. 다양한 춤의 세계에서 감동과 환희의 순간들이 사진으로 남아있다.

무용은 끝나도 감동은 영원히 ~





# 2006 포항해병인축제

『한번해병은 영원한 해병』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 지난 8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나라 해병대의 제2의 고향 포항에서 해병의 정신을 보여준 그 감동의 순간들!

**영일만에 울려 퍼지는 구호는 뱃고동 소리인가 해병인의 함성인가...**





#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APCTP)





오늘날 국제이론물리연구센터가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트리에스테와 지역의 타 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위 그림처럼 아·태이론물리센터와 국제이론물리연구센터는 포항과 트리에스테를 배경으로 하여 매우 흡사한 연구환경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태이론물리센터와 포항은 그 발전가능성이 매우 크다. 포스코 및 포항공과대학교와 함께 국내 유일의 산학연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연구기관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21세기 한국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중요한 첨단 연구시설인 포항기속기연구소 그리고 국내 최초의 지역주도형 테크노파크로 24개의 산·학·연·관이 협심단결해 조성한 포항테크노파크 등은 포항과 학기술단지 조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센터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으로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 포항시와의 협력을 비롯하여 지역의 타 연구소들과의 공동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소들간의 협력은 연구소 국제 클러스트화를 바탕으로 포항지역의 R&D특구 지정 등 포항 연구단지의 특화 및 국제화의 상징적, 구심적 역할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아·태이론물리센터의 활동분야

본 센터는 국제연구소로서 그 사업은 크게 학술연구활동, 국제협력 교류 및 연수, 아·태 과학자 네트워크 사업으로 분류된다.

학술연구활동은 첨단기술 및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세미나, Lecture, School, Workshop 등을 개최하고 회원국의 핵심연구



인력을 비롯하여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아·태 지역을 선도하는 연구그룹을 형성하고 국제연구기관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이

론물리분야를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아·태이론물리센터를 방문한 과학자는 이미 6,000여명을 훨씬 넘어섰고, 2005년 한 해 동안 1,400여명의 국내외 과학자들이 본 센터를 방문하여 활발히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한편, 국제협력 교류 및 연수에 있어서는 해외 학술협력기관의 공동 연구를 위해 회원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의 학술 활동을 지원 및 공동주관하며, 젊은 과학자들을 발굴하여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기관으로서의 공동연구를 적극적으로 모색, 주도하고 있다.



기존의 세계 유수의 연구소들과의 협정 이외에도 최근에는 MPI-PKS(독일 막스 플랑크 복잡계물리연구소) 및 JINR(러시아 고에너지물리연구소)

과의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며 아·태이론물리의 핵심기관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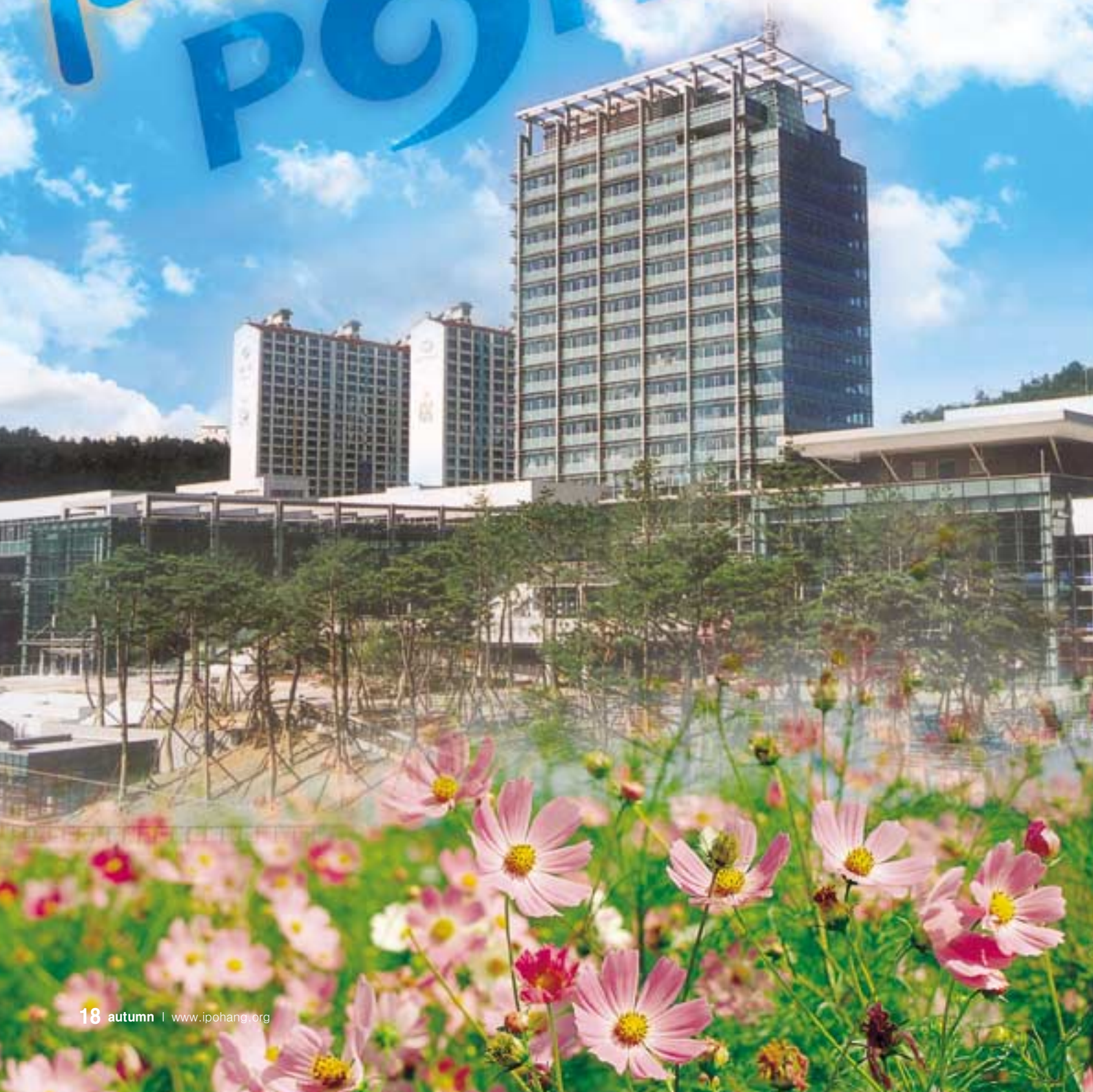
이러한 아태지역 물리분야의 수준향상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다수의 국제공동학술회의 개최로 국제연구소로서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아울러, 본 센터는 2005년부터 추가로 아·태 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수없이 많은 연구 관련 정보와 넘쳐나는 컨텐츠들 속에서 청소년이나 대중이 무엇을 보고, 듣고, 읽고 참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급과학컨텐츠를 창출 및 보급하고자 활동하고 있다.

일반인이 과학을 잘 이해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 국가의 과학문화는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과학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 Powerful POHANG





**본청사 층별 용도**

지상 14층	휴게라운지, 국제관계자문실
지상 13층	식당, 주방
지상 12층	도시계획과, 건설과, 신항만배후사업단
지상 11층	주택과, 재난안전과 (재난관리상황실)
지상 10층	해양수산과, 첨단과학과, 교통행정과
지상 9층	투자통산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지상 8층	자치행정과, 감사담당관실(감사장)
지상 7층	시장실, 부서장실, 비서실, 중회의실, 국장실(5개소)
지상 6층	브리핑룸, 문화공보과, 기획예산과
지상 5층	청소과, 도시녹지과, 환경위생과
지상 4층	전산 및 OA기기실, 통신교환실, 정보통신과, 여성청소년과
지상 3층	소회의실, 직장협의회, 휴게실
지상 2층	대회의실, 건설환경사업소, 사회복지과
지상 1층	시민홍보관, 민원실, 숙직실, 관리실
지하 1층	휴게라운지, 재정관리과, 은행, 스튜디오, 상하수도사업소, 체력단련실
지하 2층	종합문서고, 행정자료실, 시청각실, 디지털작업실, 체력단련실
지하 3층	예비군중대본부, 민방위대피실, 영선실, 통합방위상황실, 수방자재창고

**문화복지동 층별 용도**

옥상	야외공연장, 시간외정원
지상 3층	도서관
지상 2층	대공연장, 전산교육장, 문화강좌실
지상 1층	어린이집
지하 2층	대공연장
지하 2층	무대연습실, 도구제작실

**의회청사 층별 용도**

지상 4층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위원장실 (4개소), 전문위원실
지상 3층	위원회 회의실 (3개소)
지상 2층	간담회장, 의원사무실, 위원회 회의실
지상 1층	전시홀, 본회의장, 의회사무국
지하 1층	도서 및 자료실, 세미나실, 휴게실





# 나눔과 순환의 재활용 상설매장 행복한가게

'행복한 가게'에서 행복을 사세요! 사고파는 것이 자선이 되는 곳,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키우는 곳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싼 값으로 되팔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순환운동에 앞장서는 단체가 있다. "행복한 가게"이다.

"행복한 가게"란 기부자 개인의 이름으로 중고물품을 기부 받은 뒤 판매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아가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올해 6월 개점 1주년을 맞이한 '행복한가게'는 포항시와 포항MBC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난 2005년 5월 24일 포항시 남구 대도동 382-2번지 (남구청옆 구 견인차량사무소)에 개점 했다.

행복한 가게는 이동골프클럽대표 강희성 씨와 포항시의원 임영숙 씨가 공동대표로 고문, 자문위원, 감사, 배분위원, 운영이사, 실무담당과 자원봉사자 85명으로 구성되어 가게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은 주1회 출근하여 회원 상호간 가족적인 분위기

로 서로 도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물품정리 및 매장 관리에 힘쓰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행복한 가게에서는 나눔과 공익을 위한 재활용품 사용 문화운동을 개발, 정착, 확산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눔의 사회문화 조성의 시민단체, 공공기관, 기업, 개인 자원봉사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 문화운동으로 확산하고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모든 시민들의 행복한 쉼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포항시,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동국제강, 롯데백화점, 포항상공회의소 등 20여개의 각 기관 단체 및 기업체에서 가게 일일명예점장 행사에 참여해 재활용품 기증과 일일 봉사활동을 통해 가게 매출 증대와 나눔과 베풀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직접 몸으로 느끼며 일일 봉사활동을 하였다.



## 밝고 바른 순백의 꿈을 가꾸는 양포초등학교

나무와 꽃들로 가득 차 있는 양포초등학교(교장 조천수·제27대)의 교정에 들어서면 60여년의 역사와 전통이 곳곳에 묻어 난다. 수령 50여년이 넘어 보이는 교목인 이팝나무 10여 그루가 학교의 역사를 대변해주고 있고 은행나무, 향나무 등 크고, 작은 나무들은 시원한 야외 공원 학습장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해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팝나무 주변으로는 땅두릅, 금낭화, 천남생 등 우리나라 야생화 약 200여종이 빼곡하고 담장 옆 자연석 사이로 교화인 장미와 철쭉의 조화가 그림을 그려 놓은 듯 아름답다.

교직원과 학생들의 땀방울, 정성어린 손길과 보살핌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의 관찰학습장으로,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관광객들의 컴퓨터 누구나 둘러보고 쉬었다 가는 아름다운 학교다.

양포초등학교는 옛 장기군 현내면 현 포항시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초 일본인이 양포 양항을 개발하기 시작한 후 냉동 공장 설치를 비롯하여 정치망 및 저인망 등으로 어획고가 높아지자 인구가 늘어나고 어항이 설립된 이후부터 각종 수산물의 명산지로 활기를

띄게 되었으나 일제의 식민지 정책으로 1면 1교제라는 미명하에 장기 국민학교에 속해 있었다.

일제 말엽에 소위 문화정책의 소산으로 초등교육기관의 증설령에 따라 계원국민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때 계원국민학교 학구로 개편되었으나 8.15 해방과 함께 배움에 굶주린 주민들의 열광적인 국민교육기관의 증설운동으로 학교 위치를 모색 중 당시 면 유림이며 일제의 신사터인 현 위치에 양포국민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1949년 4월 1일 양포국민학교 설립기성회를 조직(회장 김우광)하였다. 그해 9월 30일 양포공민학교 교사를 인수하여 내부수리를 통해 가교사로 사용하기로 정하고 양포, 신창 2, 3리, 수성2리를 학구로 하여 계원국민학교와 장기국민학교에서 학생을 인수하여 가교사에서 10월 20일 개교하였다.

그 후 6.25 동란을 겪은 후 1952년 11월 1일 현 위치에 교사 1 동 3 개 교실의 기초 공사에 착공, 1954년 4월 1일 준공하여 오늘에 이른다. 올해 2월 17일 제55회 졸업식까지 총 3,128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다. 졸업생 가운데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름을 드높이는 인재들이 많다

#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과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으로 세계일류 중소기업에 선정된

# (주)성진E&I

2006년 6월 14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세계 일류 중소기업 육성 행사에서 '(주)성진E&I(대표이사 김영범, 49세)는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로 세계일류 중소기업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에 위치한 (주)성진E&I는 법인 설립 이래 10여년간 제철생산설비를 생산하여 POSCO와 POSCO 건설, 포철산기 등 제철 생산업종에 납품하고 있는 제조업체다.

생산제품의 안정적인 납품을 유지하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5년 1월에 POSCO로부터 우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3월에는 POSCO인증 파트너로 선정된 기업으로, 지난 1994년 직원 5명과 함께 '주식회사 성진정밀'로 출발하여 2005년 8월 공장 증축과 더불어 회사규모에 걸 맞는 '주식회사 성진 E&I'로 상호를 변경하고, 젊은 유망주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수출판로를 개척하는 등 현재 36명의 직원들이 밤낮없이 연구,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성진 E&I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개선에 따른 제품의 우수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여 2000년도에 ISO 9001, 2005년도에 ISO 14001 품질인증을 각각 취득하였다.

그동안 성진 E&I는 '공정개선과 안정화로 품질향상, 부가서비스 체계 확립으로 고객 불만 제로화를 선언하고, 제품의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기술우위확보'를 품질 목표로 삼고 ROLLER류, ROLL CHOCK, LINER류, 제관품류 등의 기계부품을 생산해 연간 171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특히, Roller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5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벨기에, 중국에 이어 2005년도에는 일본, 미국, 오스트리아까지 진출하여 2년에 걸쳐 10억 5천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수작업에 의한 불완전하고 불필요한 요소의 공정을 줄임으로써 근골격계 질환 방지 등 원가절감,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에 역점을 두고 포스코로부터 열연공장에 LINER 분해용 DEVICE개발, BACK UP ROLL STACK LINER CHANGING DEVICE 개발, SCRAP BOX 개선, 냉연공장에 POLISHER BRUSH ROLLER 세정장치 개발, PL WELDER 전극 분해 조립용 DEVICE 개발 등 6건의 신기술의 등록과 개선실적을 올렸다.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어린이 책문화운동을 펼치는

# 포항 동화 읽는 어른 모임

# 내가 생각하는 신포항 8경은 이러한 의미가 필요하다

지난날 포항 8경이라함은 자연풍경이나 고적지를 예를 많이 들지만 이 시대 신포항 8경은 풍경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지만 즉 보고 먹고 들고 즐기는 관광을 갖추어야 관광의 구실을 다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 찾아드는 관광객의 시선과 관심을 주기 위하여 자연그대로를 보존하여야 할 가치도 있지만 그것을 응용하여 지금의 변화를 먼 미래를 엮어가는 역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에 지금의 포항 8경이 21세기 이후의 포항 8경을 찾아올 수 있는 지향적 관광인프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필자는 자연이 만들어준 내연산 경치를 당연 1경으로 꼽고 싶다.

내연산은 뒤편뒤편해도 그대로를 갖고 있는 높은 산과 울창한 육송 그리고 깊은 계곡의 힘차게 흐르는 폭포 이러한 내연산은 포항 시민의 자랑이 아닐수가 없다.

내연산의 경치를 용담호에 30m나 깊이 묻어 세운 절 이름을 보경사라 하여 12개 폭포물이 굽이굽이 돌아 흐를때 내는 물소리가 산새들의 노래 연주나 다름없듯이 또한 암석에 깔려있는 그 청정한 물은 자연의 이치대로 먼 동해 바다에 서서히 사라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내연산 향로봉의 청정한 옥수는 용궁의 신녀에 의해 용궁대왕께 바쳐졌다 한다.

그렇듯 한 것은 깊은 산 울창한 송림에서 생기는 옥수가 바다와 제일 인접되어 있는 곳이 내연산이 아닐까 싶다. 바다, 높은산, 깊은 계곡, 고

추 나무들이 우거진 숲,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포항 시민은 아름다운 내연산의 고마움을 알고 사랑하며 자랑하여야 할 것이다.

## 2경은 송도 해수욕장과 송림이다.

수천년전 송도 백사장은 조개 서식지였다. 송도는 파도가 쉬는 날 없이 수없이 밀려오는 바다지만 바다갈지가 않은 파도, 찰싹 찰싹 두 번 깨어지고는 썩~으윽 밀려 드는 파도의 힘, 물가는 맨발로 달려도 운동장 같은 딱딱한 백사장, 물가에도 어린이나 어른이 함께 즐길수 있는 모래성 쌓기며 밤이 깊어 가는 줄 모른다.



송림은 시민의 공원이면서도 바다 물고기들의 쉼터이다. 근해의 바다에 놀던 물고기떼가 송림의 숲을 바다속의 물꽃, 산호숲인줄 알고 몰려오다가 물에 내트고 실수를 한다.

## 3경은 호미곶이다.

옛 신라시대 전설로, 지금의 오천 해변부대내에 연오랑과 세오녀의 애뜻한 사랑을 나누던 자리이며 그 사랑이 너무나 아쉬웠던지 세오녀가

## 죽도농산물시장 아케이드 준공

포항시는 지난 7월 27일 전국 최대의 재래시장인 죽도시장에서 '죽도농산물시장 아케이드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6월 착공해 최근 준공한 죽도농산물시장 아케이드는 길이 250m에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대형 사업으로 죽도시장은 곳곳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 소풍센터로 거듭나게 됐다.

현대화된 죽도시장 리모델링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아래 전천후 아케이드 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2006년 7월 현재까지 8개소 1천260m의 아케이드 거리를 조성하고, 현대화된 700여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

죽도시장은 지난 1971년 11월 부지면적 4만5천평에 개설하여 농산물, 건어물, 수산물, 의류, 포목, 신발과 포항의 명물인 과메기 등 다양한 업종으로 볼거리 먹거리 장터로서의 전국 최대의 재래시장으로서의 손색이 없다.

(지역경제과 245-6247)



## 구룡포 놀테 배수펌프장 완공으로 침수피해 예방

여름 장마철이면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구룡포읍 놀테리 마을에 지난 9월 총 사업비 79억원을 들여 그동안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배수펌프장을 완공하여 침수피해 걱정을 덜었다.

지난 여름철 태풍 "산산" 내습시 구룡포 지역에 157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나, 놀테 배수펌프장 가동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장마철 태풍·호우로 인한 농경지·가옥 침수피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245-6374)



## 포항테크노파크(TP), 3년 연속 전국 '최우수(1위)'

포항테크노파크(이사장 박승호 포항시장)가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전국테크노파크 평가에서 단지조성, 창업보육, 특화산업 육성, 교육·훈련분야 등 TP사업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해 전국 8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최우수 테크노파크로 선정됨과 동시에 국비 26억5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산업자원부가 6월말부터 7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전국 8개 TP를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광역단체에서 설립돼 운영되는 다른 7개 TP를 모두 제치고 최우수 TP로 선정됨으로써 3년 연속 최우수 테크노파크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평가위원들은 포항테크노파크가 지난 1년간 재정관리 실적이 내실있고 사업목표와 전략이 잘 조화돼 있으며, 단계적 단지조성 등 인프라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연구기관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 있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포항지역의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하는 전략, 장비의 집적화, 창업보육업체와 기업지원사업과의 연계성 등 TP 운영방향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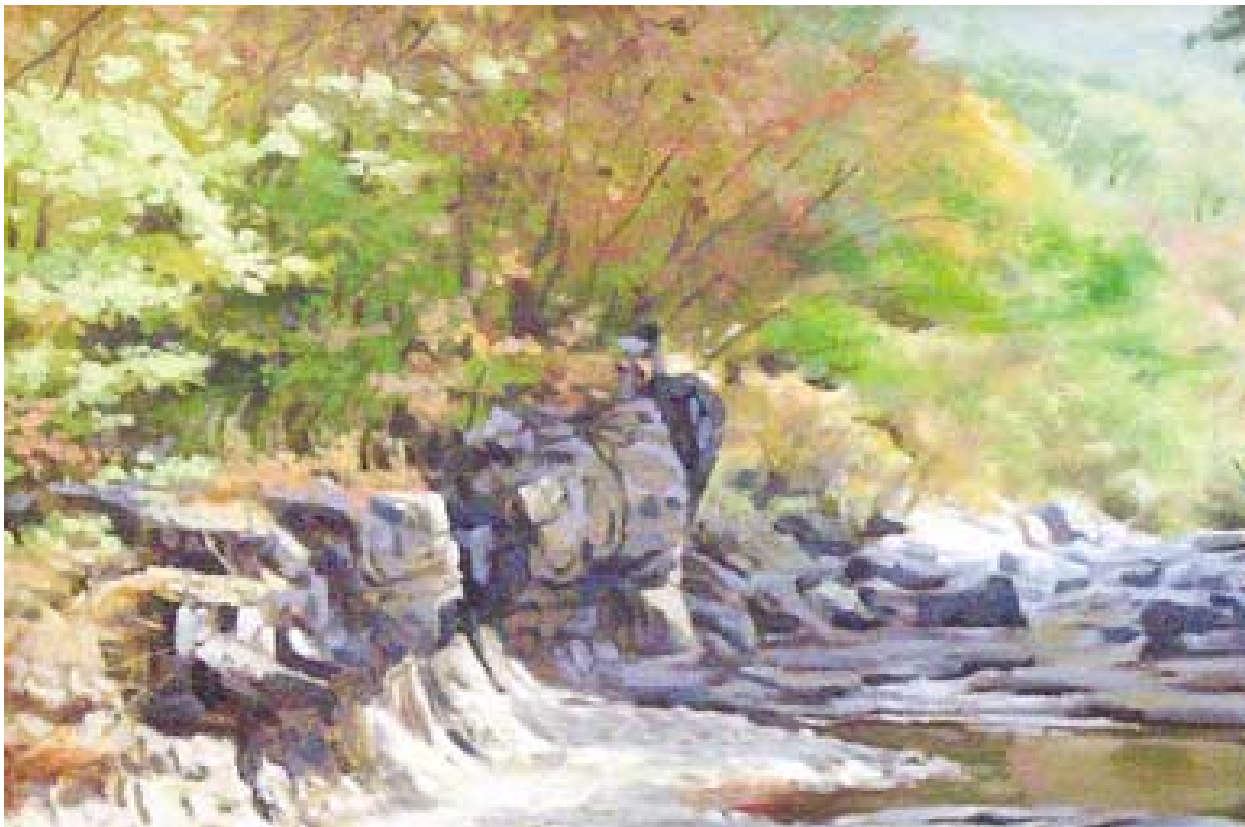
는 평가를 받았다.

포항TP는 현재 본부동과 1·2벤처동, 속소동을 준공하고 첨단기업 및 연구소를 적극 유치한 결과, 현재 54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신기술 개발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2003년 342억원, 2004년 982억원, 2005년 1천4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1천8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앞으로 포항테크노파크(TP)는 공사 중인 제3벤처동을 비롯해 내년 상반기 착공할 4벤처동이 준공되면 포스텍, RIST, 생명공학연구원, 나노기술집적센터, 지능로봇연구소 등과 연계한 동남권 부품신소재, 바이오, 나노, 대체에너지 등 첨단산업의 특성화·전문화 거점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며, 최종 마스터플랜인 제2단지 개발이 완료되면 포항지역이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메카, 활동해권 최고의 테크노폴리스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된다.

(첨단과학과 245-6277, 테크노파크 223-2206)





2004 - 11 - 69 \_ 65.1×50.0cm \_ Oil on canvas



## 김 왕 주

대구대학교 동대학원 졸업

개인전 1회(갤러리 포), 국내외 그룹 및 초대전 110여회 출품

대구대학교 미술대학, 위덕대학교 조형예술학부, 포항유성여자고등학교 미술강사 역임

대구미술대전, 경상북도 미술대전, 정수미술대전 특·입선 다수, 포스코불빛미술대전 특별상 수상

포항미술학원장, 선린대학 상업디자인과 강사

포항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수채화 강사, 영덕도서관 문화강좌 수채화 강사

한국미술협회 포항지부, 포항구상회, 한국현대구상작가회, 정수회 회원

# 옛 조상들의 통신수단 봉수(烽燧)

김진규 포항시 지방학예연구

인간이 모여 살면서 촌락을 형성하고, 부족국가로 성장하여 집단형성의 과정을 통하여 국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국가는 출현 이후 다른 국가집단과의 경쟁 과 갈등을 빚으면서 성장, 발전, 쇠퇴의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를 외부 갈등집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국방력의 증진을 꾀하게 되고 또한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었다. 그러한 여러 방법들 가운데, 다른 갈등집단의 침입이나 이상 징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알리는 통신수단이 발달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봉수이다.

봉수(烽燧)는 우리가 흔히 봉화(烽火)라고 일컫는 통신수단이다. 불 빛 또는 연기를 이용하여 위급함을 알리거나 다양한 신호 방법으로 각각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발생장소로부터 중앙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불을 피워서 알리는 것을烽(뿔불 : 炬)이라 하고, 낮에 불을 피워 그 연기를 보게 하는 것을燧(연기 : 煙)이라 한다.

대략 수 십리의 일정한 거리마다 요지가 되는 산의 정상부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주연야화(晝煙夜火)의 방법을 통하여 위급상황을 알리는 방법이다. 봉수의 거화는 뿔불의 수에 따라 그 위급함의 경중을 나타냈는데, 내지와 해안에서의 화의 숫자에 따라 그 의미가 구분되나 우리가 해안가에 위치한 관계로 해안지역의 화를 기준으로 설명코자한다. 조선시대에 해안에서의 1화는 태평과 평화가 계속될 때, 2화는 바다 위에 적이 출현할 때, 3화는 적선이 해안에 접근할 때, 4화는 적선과 우리 함대가 접전할 때, 5화는 적군이 육지에 상륙할 때를 나타낸다.

이는 국가의 정치·군사적 정보제공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사로운 사용은 금지된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근대이전에는 어떤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데 봉수만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통신수단이 발달하여 그 역할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체되면서 봉수의 역할은 급속히 쇠퇴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기능이 폐지되고 말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종 32년 각 지역의 봉대봉수군이 폐지되었다는 《고종실록》의 기록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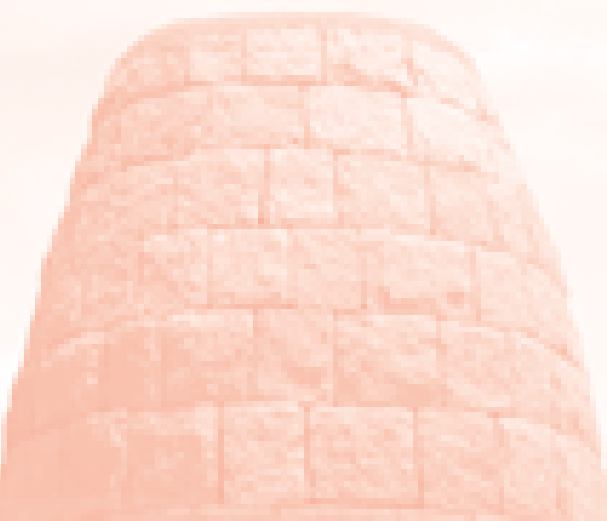
이러한 봉수제도는 각종 기록을 살펴보면 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三國史記》卷2 新羅本紀 奈解尼師今 29년 기록에 나오는 ‘烽山’이라는 용어가 그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신수단은 고려시대에도 이어졌으나 봉수노선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 그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고려 말 북방 흥건적과 남해안 왜구의 잦은 침략으로 인하여 봉수제 운영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그 이전보다는 한층 강화되었을 것이다.

고려를 이어 들어 선 조선도 변방지역의 안전확보가 급선무였고 이에 봉수제를 더욱 강화하였을 것은 추지의 사실이다.

단지,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긴 탓에 봉수로의 연결노선이 한양으로 집중되는 체제로 정비되었다. 태종대에 봉수제의 중요성이 강조되다가 세종대에 전국의 성을 정비하면서 봉수제도 더불어 정비가 되고 세종대에 이르러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어 기록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전국의 모든 봉수노선을 일별한다는 것은 지면관계상 무리가 있고 우리고장의 봉수에 관해 고찰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일 일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총 567개소의 봉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중 경상도에는 136개소로 가장 많은 봉수가 분포하고 있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총 742개소 중 138개소로 함경도의 222개소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었다.



# 포항문화의 발전과 문화원의 위상

안수경

포항문화원 사무국장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어느덧 계절의 흐름은 美의 계절, 가을의 한복판에 서있습니다. 가을이란 단어만 들어도 하늬바람에 흔들리는 누우런 들녘과 미소 띤 人心의 혼혼함이 절로 느껴집니다. 실로 풍성함이 주는 성실미(誠實美)가 아니겠습니까?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지금, 눈앞의 안대(案對)에는 '가을들판의 풍성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느낀다는 것은 문화입니다. 요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문화란 단어가 빠지면 시대적 소외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야말로 문화의 르네상스시대가 아닐까요? 문화(culture)의 어원은 '갈고 닦는다'에 있습니다.

갈고 닦아 교양을 쌓는 것이 문화의 본질이며 인간이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이거나 생활 이상을 실현하는 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획득되는 정신적 물질적 소득의 총칭을 일컫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정신적 소득을 가르킵니다. 문화는 그 특성상 전통문화, 예술문화, 대중문화(기층문화)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21세기의 문화는 건전한 대중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전통문화와 예술문화가 앞장서며 함께 어울어지는 화합의 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혜의 미향을 가진 포항. 포항의 21세기 문화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포항은 2세기에 이미 해외 교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포항이 한국 해맞이의 성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주는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는 시각을 전환시켜 보면 고대 한일 교류사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유구한 한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남겨진 민족 고유의 자연 신앙 그 근원에 포항이 있습니다. 일월의 정령인 인제가 일본으로 유출 되었다는 안타까운 교훈은 남겼지만 바다를 향한 대외교류의 물꼬는 오늘날 포항의 신향만이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역사적 당위성을 가집니다.





# 문화가뉴스

## 제15회 전국무용제 화려한 막을 내리다.

한국을 대표하는 춤의 축제 마당인 15회 전국무용제가 첫날인 지난 9월 11일 국립국악원의 궁중무용을 시작으로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속에 열흘간의 경연일정을 마치고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Let's Dance!”라는 주제 아래 전국 15개 시·도 대표무용단의 열띤 경연 속에 치러진 이번 전국무용제의 대상의 영예는 충북의 박재희 새암무용단의 바람꽃(그 바람의 신화)에 돌아갔으며, 경북의 백경원 무용단은 ‘산유화...부활초로 붉어지다’의 작품을 공연하여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개막식에 이어 그동안 포항문화예술회관과 야외무대 등에서 15개 시도 팀의 열띤 경연과 볼쇼이 발레단 등 국내외 유명 무용단의 초청 공연과 시도의 날 행사, 댄스스포츠 페스티벌, 무예무용, 힙합, 전통무용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기도 했다.

특히 지난 89년 전국무용제가 시작된 이후 경북지역에서 처음 열려 지역 무용애호가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춤의 세계를 제공해 문화적 욕구를 해소 하는데 기회가 되었다고 분석됐다.

## 중견 시조시인 조주환씨,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 제93호 출간

포항고등학교 교장이자 경북문인협회장으로

로 포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있는 시조시인 조주환씨 작품 『우리시대 현대시조 100인선』 93호가 발간되었다.



한국시조 100년사를 작가별 선집 형태로 정리한 책으로 시인의 20여년만에 묶은 네 번째 시집인 만큼 편편마다 긴장된 절제미와 묵언의 메시지가 가득실려 여기에서 시조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 한다.

## 제9회 재생백일장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9회 재생백일장이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부터 수도권 덕수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초·중·고, 일반으로 나누어 시와 산문부문으로 펼쳐지며 주제는 당일 발표를 하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4일에 가질 예정이다.

재생백일장은 「‘재생’은 우리 고향에서 문화예술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일생을 보내신 이명석 선생의 호이다. 재생 이명석 선생은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도록 포항지역의 문학예술활동을 주도하여 온 사실상 정신문화의 지주였다. 궁핍한 시기였던 당시 우리지역이 문화의 불모지로 불려지고 있을 때, 선생은 불굴의 개척자적 정신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전통을 가꾸려고 애썼다. 문화예술단체가 전무한 지역실정을 타개하기 위

하여 덕수공원에다 문화원을 설립하고 도서관 건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문학강연회, 미술전람회, 음악회 유치 등 각종 문화예술을 주도하였으며 최초의 문화제인 개항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6.25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문맹자 퇴치를 위하여 공민학교를 여는 등 애국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였다.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여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을 비롯하여 많은 시작을 남겼으며,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포항시민의 노래’를 작사하기도 했다. 오늘날 지역의 활발한 문화 예술활동은 바로 재생 이명석 선생이 뿌린 씨앗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선생의 공덕과 노고를 기리고, 계승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역 후손으로서 마땅한 일이다.」이런 취지에서 한국문인협회 포항지부에서는 1998년 2월 수도권 덕수공원에 “재생 이명석 선생 문화공덕비”를 건립하고 그해 시월부터 매년 재생백일장을 개최하고 있다.

## 배용일 전 포항1대학 교수 소장도서 기증



지난 8월 18일 포항 1대학에서 정년퇴임한 진촌 배용일(향토 역사학자) 전 교수가 한평생 학문연구와 후진 양성에 헌신하면서 포항 발전과 지역 향토사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간 학문 연구의 바탕이 되었던 귀한 소장도서 1만7000여권을 포항시민을 위해 포항시립도서관에 기증했다.

## 의회활동 소식

### 제1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결 및 시정에 관한 질문 펼쳐

포항시의회는 지난 8월 29일 개최한 제1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18일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포항시 당초예산 7,443억 7,000만원보다 13.6%가 증가한 8,454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를 거친 총 176건의 감사자료를 포함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확정해 오는 10월 12일 개최하는 제126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난 9월 4일과 5일 양일간에는 8명의 의원들이 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활발히 펼쳐 시정전반에 대한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건설노조 협상 타결 환영 성명서 발표



#### 불편을 인내해 주신 51만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

포항시의회는 9월 20일 오전 '건설노조 협상 타결 환영 성명서'를 채택하고 "늦었지만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을 위해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여 협상을 타결한 것은 노사 양측의 상생은 물론 우리 포항의 앞날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며 이제 노사는 관용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결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불편을 인내해 주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51만 포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 현장 방문

### 찾아가는 의정활동 전개

포항시의회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과 우렁쟁이 폐사현장 등 주민불편사항 및 진정 건에 대한 생생한 민생현장 점검을 통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 우렁쟁이 폐사현장 방문 (8. 22)



▲ 연일 증명자연생태공원 방문 (8. 28)



▲ 현진에버빌 건설현장 방문 (9. 12)



▲ 보시간담회 (8. 22)

## 의회방문



▲ 미국 피츠버그시 시장 일행 내방 (9. 18)



▲ 중국 리양시 부시장 일행 내방 (9. 13)



▲ 일본 조에츠시 의회 의장 일행 내방 (7. 31)

## 위문활동

- ① 2006 을지연습 상황실위문 (해양경찰서)
- ② 포항시재해대책본부 방문 직원 노고 격려



▲ 2006 을지연습 상황실위문 (해양경찰서, 8. 21)



▲ 포항시재해대책본부 방문 직원 노고 격려 (7. 31)

## 기타 의회소식

### 전직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9. 13)

포항시의회는 지난 9월 13일 전직 포항시의회 의장들을 초청해 포항시의 인구감소와 기업유치활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비롯한 도청유치 및 신청사 문제, 남·북구 간 출퇴근시간 교통난 해소방안, 죽도시장 손님맞이 및 위생관리 대책, 동빈내항 워터프론트 추진 등 지역현안 및 포항시 발전방향과 의회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꿈을 돌리는 아이들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음악줄넘기팀

“더 빨리! 더 오래! 더 화려하게!”

줄넘기는 재미없고 따분한 운동이라는 개념을 바꾼다. 줄넘기에 음악이 더해진, 8자 돌리기에 대중음악이 곁들여진 줄넘기는 더 이상 지루한 운동이 아니다. 화려한 울동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균형과 조화의 세계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장 김철용) 줄넘기팀은 1998년 개교하면서 성장기 아동에게 기초체력 향상은 물론 비만을 예방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생각되어 체육시간을 통해 전교생의 줄넘기 활성화를 시도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음악줄넘기팀(지도교사 이기태)이 탄생하게 되었다.

수업시작하기 전 5분 가량 음악에 맞춰 개인 연속뛰기와 주 2회 중간 체조 시간에 개인이 닦은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도전 금메달’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년별 줄넘기 급수제를 실시하였다. 기술습득이 우수한 아동들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등 동기를 부여 하였다. 그리고 특활시간에 ‘음악줄넘기팀’을 편성하여 개인줄넘기, 2인 복수줄넘기, 쌍줄넘기, 단체 협동줄넘기 등의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특활시간에 지도하였던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꿈을 돌리는 아이들’이라는 팀명으로 음악줄넘기팀을 만들어 방과 후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꿈을 돌리는 아이들’은 지금까지 출전한 전국줄넘기선수권대회에서 5연패, 전국청소년 문화 큰 잔치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TV 줄넘기편 ‘대단한 도전!’에 초청되어 출연함으로써 음악줄넘기라는 줄넘기의 새로운 장을 선보이게 되었다.

그 이후 연 30회의 지역의 많은 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면서 보는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었고, 각종 라디오, TV 프로에서 우리 아이들을 취재하면서 방송 출연도 많아졌다.

또한, 음악줄넘기가 생활속에 보급되기를 희망하면서 ‘무료 줄넘기 교실’을 열어 남부경찰서, 교원, 스님까지 줄넘기 동아리를 연계시켜 오늘날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줄넘기에 대한 관심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또 음악줄넘기 보급을 위해 줄도리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무료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동영상줄넘기 홈페이지(www.juldori.com)인데 그 동안 줄도리 회원들이 많이 늘어서 하루에 88여명의 접속자가 생겨 동영상상을 보기 어려울 때도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여러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과를 올렸다.

2002년 처음 태극기를 달고 일본 "제26회 사이다마현 줄넘기선수권

사랑은 나누고 행복을 가져가세요!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족

# 포항아동·가족상담센터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번지 포항시립도서관 옆에 위치하고 있는 "포항아동가족상담센터"(관장 임인순)는 한국복지재단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전문적인 보살핌을 펼치어 그들이 참되고 아름답게 자라게 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밝고 따뜻한 삶을 이루도록 한다는 사명 아래 1981년 대구·경북지부를 현재의 위치에 개소하였다.

1989년 포항시로부터 포항종합사회복지관으로 위탁을 받아 지역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좀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4월에 "포항아동가족상담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포항아동가족상담센터"는 지역 내 아동과 가족구성원의 발달적 장애와 정서적 문제를 위해 상담과 치료분야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팀 접근 방법을 도입한 심리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언어치료, 인지 학습치료 및 집단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가정의 생활속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아동

과 청소년의 정서적 부적응이나 발달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한 개인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사업의 역점을 두고 있다.

"포항아동가족상담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개별적인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서, 발달, 행동 장애의 문제를 극복하고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미술·놀이·인지학습·언어치료를 통한 개별 치료와 각 개인의 경향성과 문제를 가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지능·발달·성격자폐성·행동·학습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심리검사가 있다.

이밖에 소그룹 및 집단 치료는 개별 치료보다 집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을 이용하여 또래 집단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소사회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집단에서의 지지를 통하여 희망을 주입하여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포항아동가족상담센터를 이용하는 대상들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경향성을 가진 아동, 발달·정신지체장

# 꿈과 희망이 샘솟는 어린이도서관 책이랑 글이랑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책장을 넘기고 음악을 들으며, 폭넓고 다양한 문화 경험을 쌓는 곳!  
어린이도서관 “책이랑 글이랑”은 어린이들의 쉼터이다.

어린이도서관 ‘책이랑 글이랑’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관장으로 있는 김성희씨는 “몇 년 전 모 방송국에서 어린이도서관 만들기 운동으로 전국이 떠들썩 했을 때 학부모인 저 또한 아이에게 책을 읽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와 손잡고 한 걸음에 달려갈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지난 2004년 3월 포항 이동에 있는 보성빌딩 3층에 개관하여, 2005년 2월도서관(사립문고)으로 인기를 받아 지금의 도서관 틀을 만들기

까지 많은 일을 겪었다.

처음 문을 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서관 길잡이 자리를 몇 번이고 포기하고도 싶었다고 한다.

제한된 수익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매일매일 닥쳐왔고, 주변 어머님들의 도움이 시작되고서 많은 어린이들이 찾게 되자 비좁은 공간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여 올해 3월 현재 자리하고 있는 남구 이동 이동중학교 앞(이동 652-1번지)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포스코 창립 38주년 기념 제 19회 식물백일장 장원작품입니다

## 옆자리

오유성 / 용흥중학교 - 중등부 장원

나의 옆  
자연과 사람들이 있다

꽃과 풀의 노래  
나무들의 춤  
봄비들의 장단

나의 옆엔 이렇게  
하나의 명곡이  
자리 잡고 있다

손과 발의 노래  
전기톱의 춤  
산성비의 장단

나의 옆에 있었던  
하나의 명곡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 달콤한 휴식

최효정 / 중앙여자고등학교 - 고등부 장원

난 지금 다리가 아파요  
갈빛 흙 야무지게 쌓아놓은 논두렁에  
쫓그려 앉아  
흠내음 절로 나는 도랑가에  
쫓그려 앉아  
푸르른 개구리밥 덮인 도랑을 바라보느라  
다리가 아파요

그 연듯빛 속  
개골개골 고요함을 깨뜨리는  
개구리를 보며  
푸르름! 하고 나직이 읊어보면  
마음속까지 푸른 물이 배는  
그 푸르름, 느끼기도 전에  
쫓그려 앉은 다리가 아파와요  
하지만 얼마만인가요  
이렇게 여유롭게 자연과하나된 것도  
얼마만인가요  
몸속에서 우러난 파란 물이  
하늘까지 파랗게 물들이는  
이런 시간이

얼마만인가요

# 음악회에서 마음을 행구고



이유희 / 북구 두호동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며 내 뺨을 간질이며 지나간다. 무더운 여름철에 스쳐 지나 온 바람은 고맙다. 복지회관에서 책을 빌리고 마트에서 찬거리를 구입하려고 가는 길이다. 버스 한 정거장의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린다. 마치 물에 빠진 생쥐 같은 모습이다. 작년 겨울에 얼었던 얼음이 따가운 햇살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여름이면 유별나게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이다. 그래서 나는 여름을 싫어한다.

집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들이 준비를 하였다. 오랜만에 음악회에 가는 저녁이다. 오늘은 정장을 입고 한껏 멋을 부리고 나들이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 정장을 입을 수가 없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여자의 마음인가 보다. 치마에 블라우스를 입고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정장을 입지 못해도 영혼을 맑게 해주는 음악회를 가는 나는 신바람이 났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내 앞에 승용차가 멈추더니 “유희님!” 어디 가세요!“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분을 바라보았다. 아는 분이였다. 우연히 그분을 만난 나는 수줍음과 반가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공연히 소녀처럼 가슴이 콩닥거리며 불화토를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분이 떠나간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분이 내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밀물처럼 밀려드는 옛 추억의 바람을 막을 수는 없었다.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것이다. 몇 년 동안 소녀의 첫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왔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첫 사랑이었는지, 짝사랑이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한 마디 말도 해보지 못하고 끝내버린 안타까움이 아직도 가슴을 아리게 하는 것을 보니 그 시절 소녀의 마음이 가슴 한켠에 남아 있나보다.

여고 시절에 나는 영화와 음악회, 연극과 소설책에 흠뻑 빠져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도 아니었다.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혼자 다니면 감상하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좋았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어머니는 언제나 용돈을 풍족하게 주셨다. 그 시절 터질듯 한 첫사랑을 가슴에 안고 지내 온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이런 곳에 마음을 쏟아 부었는지도 모른다.

영화를 보고나면 멋진 주인공을 그리워하다가 사진을 사 모았다. 그리고 시립 오케스트라 연주회나 독창회를 빠지지 않고 갔었다. 특히 테너 신영조님 팬이었다. 지금은 그 많은 음악가 이름들이 생각이 나질 않는다. 아마 세월 탓인가 보다. 엄정행님의 독창회도 빠짐없이 갔었지만 신영조님의 목소리에 매료되어 연주 테이프를 사서 자주 들곤 하였다.

그 당시에는 음악가들의 독창회가 자주 있었는데 요즘은 자주 볼 수가 없다. 음악회나 연극을 보고 오면 항상 팜프렛을 모아두는 게 내 취미였다. 다음에 결혼해서 내 아이들에 물려주려는 생각도 했었다. 그런데 신혼 초에 살던 집이 습기가 많아서 곰팡이가 생겨 다 버리고 말았다. 너무 속상해 마구 울었던 기억이 새롭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내 추억을 다 잊어버릴까 봐 더 슬퍼했을 것이다.

결혼 후 아이들이 태어나고 버거운 살림을 꾸려가면서 마음의 여유를 부리며 살지 못하였다. 삶이 버겁고 울고 싶을 때는 시립 오케스트라 연주회나 음악가들의 독창회에 가서 마음을 행구어 보고 싶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사치였는지도 모르겠다. 남편과 아이들과 이웅다웅 사는 삶 속에 나만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

# 누구를 사랑하지



강성탁 / 북구 죽도2동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불듯이  
초쾌한 낙엽 되어  
온몸으로 뒹구네  
모두가 가고 없는  
쓸쓸한 이 거리에  
난 이~제...  
누구를 사랑하지  
누구를 불러보나  
가버린 날들이여  
가버린 날들이여

눈이 내린다  
잠든 거리에  
초라한 영이 되어  
하염없이 내리네  
모두가 잠든 이곳  
싸늘한 바람만이  
내 가슴에...  
한 없이 몰아치네  
먼동이 틀 때 까지  
기다리는 님이 시여  
기다리는 님이 시여

## 바보라 불리는 소년

한 마을에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는 소년이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 이 바보 소년을 놀려주기 위해서 손바닥에  
5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을 놓고서 맘대로 집어가라고  
하면 이 소년은 항상 50원짜리 동전만을 집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씨 착한 마을 어른 한 사람이  
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야 50원짜리보다는 100원짜리가 더 크단다.

다음부터는 100원짜리를 잡으려구나,"라고 큰 가르침을 주었다.  
이때 그 바보소년은 싱긋 웃으면서, 하는 말  
"아저씨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100원짜리를 집으면 싱거워서  
다음부터 그런 장난을 안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음~ "그렇겠지....."  
**"그럼 저는 돈을 못 벌잖아요."**

화롯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군밤 구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던  
지난 겨울날의 따끈따끈한 추억을「열린포항」에 풀어 놓아 보세요.

### 지난해 겨울 어떤 추억들이 있었나요?

겨울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 주세요.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나눴던 아름다웠던 추억들, 재미난  
에피소드와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사진을 보내주시면 <열린포항>에 실어 평생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겨 드

리겠습니다.

시나 수필 등 형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사진을 보내  
실 때는 반드시 촬영장소와 간단한 사진설명을 곁들여 주세  
요.  
책에 실린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12월 10일까지입니다.

#### ♣ 보내주실 곳

790-701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번지 포항시청 문화공보관광과 <열린포항> '우리 함께 해요' 담당자 앞 (shchoi@ipohang.org)



# 인(印) · 언(言) · 서(書) · 판(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는 흔히, 첫째는 사람의 인상을 말하며, 그 다음은 말을 잘할 줄 아는 사람, 말 다음에는 글을 능란하게 할 줄 알아야 하며, 그 다음에는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컬어 인언서판(印言書判) 혹은 신(身), 언(言), 서(書), 판(判)이라고도 한다.

사람의 용모가 첫째는 남이 보기에 출중해야 하고 으것하여야 하며, 씩씩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일컬어 글 잘하는 선비 보다는 혀로 말 잘하는 선비가 낫다는 말이 있듯이 글은 나중이고 첫째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며, 그 다음이 문장과 글에 능통하여야 된다는 말이다. 또한 모든 사리를 옳게 판단하는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지역의 흥해읍은 옛날 구 흥해군 남부면에 자방동(自芳洞)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성은 최씨요 문장이 남달리 뛰어났으므로 최문장으로 통하는 젊은 선비가 있었으니 어릴 적부터 모든 학문에 통달하여 그 당시의 큰 선비로서 영남지방에서는 1인자로 손을 꼽았다.

청운의 꿈을 안고 천리나 떨어진 한양을 수차레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여 항상 그 뜻을 세우지 못하였다. 더욱더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면서 기회를 엿 보던 중에 또 한번 과거에 응시하기 위하여 한양에 올라와서 수험생들과 어울려 남의 말을 들어 본답시고 어울리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시험보기 전날쯤에는 시험관의 사택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

려 놓는 것도 손해보는 일은 없을터이라” 함으로 당대의 세도가인 재상 민(閔)씨택을 방문하였다.

점잖게 인사를 드리니 민재상이 최문장을 보니 그 풍채와 용모가 너무 보잘 것 없고 인물이 아주 못났으므로 문무를 겸비한 양반의 자리에는 도저히 끼워줄 수 없는 인품이라 혼을 내어 주어 다시는 과거에 응시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재상이 “자네는 어느 선생님 아래에서 학문을 배웠는고?”하고 물었다.

“예 나의 고향에 선비되시는 악계(樂溪)선생 밑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래, 본관은 어디인고?”

“예, 본은 경주이며, 문창후(文昌候)치원의 후손되옵니다.”

“그래 자네 집안에는 3대 이내에 벼슬한 사람이 있는가?”

“예. 3대 이내에는 벼슬을 한사람은 없사오나 나라에 은혜를 입사옵고 시골에서는 양반에 속하는 가문으로 행세하옵니다.”

“그래 학문은 무엇 무엇을 읽었는고?”

“예, 송나라, 당나라의 문헌은 물론 공자, 맹자 하오며, 사서삼경 읽어보지 않은 책이 없으며, 다른 학문으로는 천문학, 지리학, 음악, 성리학 읽어보지 않은 책이 없사옵니다.”

민재상은 시골뜨기의 보잘 것 없는 선비가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하였다하며 우쭐 되므로 건방스럽다고 생각하고 어이가 없어 “내가 운자(韻字)를 내어 이 세면기를 두드려 소리가 그치지 않는 동안에 28구의 시를 지어 볼 수 있는가?”

“제가 시를 짓기는 짓겠습니다마는 옆에 글을 빨리 적는 속기

# 가을이 손짓하네

가을바람은 땀별에 시들었던 고개 속인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운다. 시멘트 담벼락을 기어오르던 능소화가 줄음에 겨워 바람에 제 몸을 몽땅 맡기고 흔들거리고 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엔 가을하늘이 동그마니 웅덩이에 앉았다. 쪽정리로 배를 붙렸던 벼이삭도 구월에 들어서면서 제법 알이 찼다. 과일들은 두어 번 태풍으로 명이 들어 상품가치가 푹 떨어진 채 동네어귀 트럭에서 떨어로 팔리고 있다.

통근기차를 타고 포항 역으로 농사지은 것들을 팔러 나오는 역전시장 아줌마들이 이불보자기에 펼쳐놓은 사과를 빨갭게 제철을 맞아 반질반질하다.

태양초 김장고추가 올해는 작년보다 그 값이 뛰었다.

7번국도변 벼이삭들은 기름진 햅쌀을 영그느라 분주하다. 흙길을 점령한 잡초들이 누렇게 가을을 맞고 있고 갈대도 하얀 날개를 펴고 금빛햇살 따라 놀러 나왔다.

가을은 그렇게 성큼 우리 곁에 와 있었다.

초등학교 네거리에서 이맘때쯤엔 체육복 차림의 아이들이 비닐봉지 속에서 굴러 나온 복숭아처럼 교문을 나서는 풍경이 흔했다. 올 구월이 되면서 동네 초등학교를 지나칠 때면, 나도 모르게 아이들을 유심히 보게 된다. 무언가 빠진 듯 행하다.

알록달록 종이꽃으로 한껏 장식한 홀라후프도 없고 가을별

# 남은 것은 상처 뿐 勞도 使도 꽤배자, 51만 시민 힘모아 경제살리기 앞장, 상생의 새출발



올 여름 포항은 유난히 무덥고 지루했고 짜증나는 여름이었다. 가뜰이나 국가경제의 침체로 생계가 어려워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생계는 말이 아니었다.

지난 6월30일부터 시작한 포항건설노조 사업사태는 노사 양측은 물론 지역사회에 엄청난 상처만을 남긴채 82일 만인 9월 20일 노조측의 ‘잠정합의안 수용’이라는 명분으로 가까스로 끝이 났다.

7월 1일 출범한 민선4기 포항시도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발을 했지만, 산적한 현안 사업들은 발목이 잡힌 채 분규사태 해결에 온 힘을 써버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포항지역 상가의 경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국가 기간산업체인 POSCO는 물론포항시의 대외신임도에도 치명타를 입었다. 공멸 직전까지 다달아 “이러다가는 모두 망한다”는 시민여론의 힘이 있었고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는 노조원들 자각이 있었기에 큰 파업의 물줄기를 돌려놓게 된 것이다.

이번 파업사태를 보면서 현재 우리의 노동운동은 직장과 가

족의 삶을 뒤흔드는 수준을 지나 지역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여론이 높다. 이번에도 오죽했으면 일반 시민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노조들과 맞대응 했겠느냐는 애기들이 뒷받침 해주고 있다.

어쨌든 이번 파업은 너무나 길었고 상처 또한 너무나도 컸다.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이제 새 출발을 할 때다. 엄청난 경제손실을 만회하려면 배전의 구슬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포항시가 ‘파업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제 노사가 함께 손잡고 선진화된 노사문화, 노동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묶은 틀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해야 것이다.

이번 파업사태 당사자인 노사 양측이 언론에 밝힌 앞으로 각오를 옮겨본다.

## 김용근 전문건설업협회 교섭대표



“이번 사태로 지역민들에게 너무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어 죄송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건설업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용근 포항전문건설협회 교섭대표는 파업사태가 82일만에 끝난 지난 9월 20일 “이번 파업사태를 계기로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의 복지는 물론 고용확대에 적극 나서겠다” 강조 했다.

김 대표는 또 파업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사측과 노



## 포항시, 기초생활보장업무 중앙평가 국무총리 표창 수상

포항시는 지난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업무 중앙평가에서 전국단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가 올해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급자 발굴, 탈수급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과 기업체 결연 지원, 주거안정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부랑인 보호, 위기 발생자 긴급 지원 등의 타 자치단체와의 차별화된 선진행정을 펼친 결과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시정목표의 하나인 '따뜻한 복지'를 적극 펼쳐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 찾아 도움의 손길로 살기 좋은 복지포함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시 사회복지과 245-6162)

## 농아인을 위한 『화상전화 민원창구』 개설



포항시에서는 농아인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할 시 의사소통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

월 1일 화상전화 민원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농아인들의 편의를 위한 화상전화 민원창구는 시청, 사업소, 남·북구청, 일부 읍면동 등 17개소 민원실에 우선 개설 하였으며, 나머지 읍면동 민원실 21개소에도 앞으로 추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포항시 사회복지과 245-6163)

## 친절한 미소로 민원인을 맞이하겠습니다. 포항시, 미소거울 제작 배부

포항시는 지난 9월 8일 일선 민원창구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친절의식을 높이고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 밝은 표정으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미소거울(Smile Mirror)을 제작해 민원실 직원들에게 배부했다.



미소거울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업무시간 전이나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밝은 표정과 환한 미소로 민원인들을 응대함으로써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다고 한다. (포항시 자치행정과 245-6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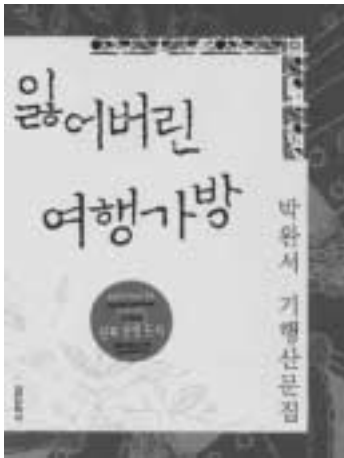
## 죽도시장 사랑권(상품권) 확대 발행



포항 죽도시장내 일부 상가에서만 통용되던 '죽도시장 상품권'이 죽도시장 전체 상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발행하였다.

이번에 발행된 상품권은 1권에 3만원(2천원 3매, 3천원 3매, 5천원 3매) 3억원(1만매)을 발행하여 노점상을 포함한 죽도시장 전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죽도1동 새마을금고에서 순회하며 상품권을 교환해 주기도해 상인들의 환급절차도 편리해졌다.

이번 상품권 확대 발행으로 대형할인점 진출과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재래시장의 상권위축 등 시장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죽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잃어버린 여행가방

독서의 계절 가을이 돌아 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한 권의 책이라도 늘 가까이 하 시기 바라며, 포항시립도서관에서 2006년 포항시민이 뽑은 한 권의 책(onebook)으로 선정된 박완서씨의 산문집 “잃어버린 여행가방”을 소개합니다.

“잃어버린 여행가방”은 우리 문학계의 살아계신 어머니이신 박완서씨의 여행기행문을 모아 엮은 산문집으로 대흥사, 일지암, 에디오피아, 티베트, 네팔 등을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점 들을 전해주고 있다. 국·내외를 돌아다니면서 그때 그때 느낀 감정이나 생각들을 편안하게 펼친 글들이지만 거기에는 심상치 않은 통찰들이 호두과자 속의 호두알처럼 박혀있다.

여행 중에 본 풍물들의 기록사진과 같은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느낀 생각들을 꼼꼼히 삭힌 내면 일기적 성격이 더 강한 기행문이다. 이것은 그가 주로 관심을 갖고 보는 것들이 미천하고 슬

픈 것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겸씨가 찍은 사진들 기행문을 더욱 분위기가 있게 만들어 주고 있다.

저자인 박완서씨는 1931년 경기도 개풍에서 출생하여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문과에 입학했으나 한국전쟁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1970년 마흔살의 나이로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나무裸木』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소설집으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배반의 여름』 『엄마의 말뚝』 『해산바가지』 『저문 날의 삽화』 『한 말씀만 하소서』 『너무도 쓸쓸한 당신』 등과. 장편소설 『휘청거리는 오후』 『도시의 흥년』 『목마른 계절』 『살아있는 날의 시작』 『서 있는 여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미망(未忘)』 『그 많던 상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아주 오래된 농담』 등과, 『꽃씨에게 보내는 갈채』 『한 길 사람 속』 『어른노릇 사람노릇』 『두부』 등 여러 권의 산문집을 간행하였다.

한국문학작가상(1980), 이상문학상(1981), 대한민국문학상(1990), 이산문학상(1991), 중앙문화대상·현대문학상(1993), 동인문학상(1994), 대산문학상(1997), 만해문학상(1999), 황순원문학상(2001)을 수상하였다.

## 열린포항은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가는 소식지입니다

열린포항의 문은 제호처럼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젠 참여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직접 열린포항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이 가슴 따뜻한 소식들과 이야기들을 직접 기획하고 싶은 열린포항의 편집자가 되어 주십시오.

- ▶ 시정에 바라는 이야기
  - ▶ 시민 여러분이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
  - ▶ 시, 수필, 콩트, 기행문 등의 창작품
  - ▶ 이웃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삶의 체험담, 추억의 사진
  - ▶ 고향을 떠나 계시는 향우님들의 활동, 미담, 에피소드
  - ▶ 포항의 얼을 살리고 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글
  - ▶ 우리회사, 우리업소, 우리마을 자랑거리 등
- ※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791-701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번지 포항시 문화공보관광과 『열린포항』 담당자 앞  
연락전화 : (054) 245-6061 · 6734 FAX 245-6069 E-mail : shchoi@ipohang.org

감사드립니다. 지난 “여름호”에도 많은 분들이 엽서를 통해 좋은 의견을 보내 주시고 애정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열린포항이 포항의 “항토소식지”로 자리를 잡아 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의견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잡지로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의견과 소감을 적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집자)



# 51만 시민화합의 힘!

## 글로벌 포항건설에 동참합시다

시민화합과 애乡심을 고취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글로벌 포항 건설을 위한  
**제8회 포항시민체육대회**가 10월 14일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 **일 시**: 2006. 10. 14(토) 10:00~
- ▶ **장 소**: 포항종합운동장 일원
- ▶ **주 최**: 포항시, 포항시의회
- ▶ **주 관**: 포항시 체육회
- ▶ **경기종목**: 3개부 / 18개 종목
  - **읍·면·동대항**: 13개 종목  
 400m계주, 초·중 400m계주, 탁구, 배구, 씨름, 족구, 마라톤  
 100m협동달리기, 100m가마니 메고달리기, 장애물경기  
 단체줄넘기, 단체줄다리기, 에드벌룬굴리기
  - **번외경기**: 2개 종목 게이트볼경기, 장애인탁구경기
  - **지역기업체대항**: 3개 종목  
 100m협동달리기, 장애물경기, 단체줄넘기
- ▶ **부대행사**: 연예인 축하공연, 해병대 의장대시범, 두드락 공연 등
- ▶ **문의처**: 포항시 체육시설사업소 ☎245-6093, 6627  
 포항시 체육회 ☎275-1181 (FAX 277-8957)

Welcome to **POHANG CITY**

**pOwerful  
POHANG**

이웃과 함께 둘러보는 향토소식지 **열린포항**은 포항의 열과 시민들의 순수한 삶의 모습을 가득 담아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 51만 시민의 소식지입니다. 다 보신 후에는 이웃에게 건네 주세요. 이웃과의 정이 더욱 깊어집니다. 열린포항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엽서**에 담아 보내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이 열린포항을 키워 갑니다.